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8월 16일 (제80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칠야주일예배워성및인터넷생방송



봉우 컬럼

관점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일들에 대해 비상식적이지, 비논리적, 비이성적이지, 비과학적, 비합리적이지, 심지어는 비윤리적이라고까지 말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신 일,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일, 죽은 자나 홀 된 송장이 살아난 일, 여리고성을 일곱 번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진 일,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그 집의 씨를 받아낸 일, 진흙을 눈에 바르고 소경이 눈을 뜬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 밖의 일이고, 논리성이란 찾아볼 수 없고, 타락한 요즘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비윤리적인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람에게 비합리적인 일이 하나님께는 일반적인 일이고, 비논리가 타당한 일이며, 비윤리적인 면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다.

어릴 때 우리 아들들은 내가 하는 일이나 하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하는 일들은 모두 기적같이 보였고, 나의 생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성하니 나를 이해했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의 상식과 논리, 지식으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예'를 해야 한다. 늘 말했듯이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눅18:27).

세상을 이기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지난 8월 2일부터 4일까지 인천교회,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교회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경캠프가 인천예수중심교회에서 '뛰어난 어린이가 되자'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에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셨다. 아이들은 목소리 높여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고,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셨다.

캠프의 첫 시간 시작예배가 진행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거나 했다는 듯이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3살 밖에 안 된 영아들부터 13

아이들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렸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그곳에 참석한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까지 하나가 되어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오시기를 초청하는 그 시간에 목사님의 인수를 통해 성령님이 임해주셨고, 성령을 받은 아이들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둥그렇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은 천국에서 열리는 잔치와 같았으며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행복했다.

이번 캠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짜나라"(신6:6~9).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이다. 그런 자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신다"(신6:10~11)고 말씀하셨다.

부모의 최고의 바람은 내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리하면서 여러 학원에 보내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유학까지 보낸다. 그러나 이는 가장 쉬운 방법을 무시한 것이다. 부



2015 여름성경캠프(인천예수중심교회)

살 초등부 아이들까지 눈을 반짝이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고, 연신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아이들끼리 함께 하는 바비큐 파티, 저녁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에 옥상에 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선생님들과 그동안 하지 못한 마음의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여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워가는 공과 시간, 선생님들, 친구들과 함께 하는 물놀이 시간, 천국의 가는 길이 좁은 길임을 배워가는 천로역정 코스시간까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였고,

온전히 보인 캠프였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우리 교회의 앞날은 밝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보장되었다 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모들의 바람을 이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쉬운 방법이라 실천하는 이가 적다. 만일 이 방법을 유명강사가 가르친다면 뭇돈을 내고 배우려고 줄을 설 것이다.

이 여름캠프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마음에 모셔 들인 우리 보배 같은 아들들 중에서 세계적인 인물, 한 시대에 맥을 그을 인물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서울교회 유아·유치부 김희정 전도사



기도로 양육하는 성경캠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신나는 물놀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성경캠프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40~41)

운명은 만남으로부터다

돌도 석수장이를 만나면 축대나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이 되고, 조각가를 만나면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나 무도 목수를 만나면 작품이 되지만, 누군가의 손에 잡히면 땀감이 되고 맙니다. 종이 한 장도 어떤 자의 손에서는 낙서 용지가 되지만, 화가의 손에 잡히면 몇 억짜리의 명화가 됩니다. 하물며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는 얼마나 중요한 일일겠습니까?

지난 주 저를 만나러 멀리 미국에서 온 플레처 목사(Dr. Kingsley Fletcher)는 만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종과의 만남을 기도해왔다고 했고, 그 응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만남이 너무 귀하다며,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은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자 팔자를 뒤엎박 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잘 만나면 왕비로 살지만 잘못 만나면 하녀로 살기 때문입니다. 고아인 에스더가 남편을 잘 만나니 황후로 살고,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도 왕인 솔로몬으로 인해 팔자가 뿔으며, 이방여인이며 일찍이 과부가 된 룯도 보아스를 만나 재벌의 반열에 오르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아내인 평강공주를 만나 장수가 된 온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세벨을 만난 아합은 이세벨로 인하여 우상을 숭배하다 결국 그 피를 개들이 핥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스승을 잘 만나 운명이 바뀐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이 3종고를 안고 태어난 헬렌 켈

지금까지 통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는 방법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인간관계가 바뀌고, 그 인간관계가 인간관계의 주체인 사람도 바꾸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변화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섯 남자를 데리고 살던 수가성 여인,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여 아무도 만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던 여인, 그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하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요4:39).

벧사람인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 배드로

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 번이나 주님을 모

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으나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된 사울은 다메섹을 지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되었고, 이방인 선교사의 이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행9).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0).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물질만이 그의 소망이었으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눅19:1~10). 성경은 말

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뮐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자입니다. 그는 16세 되던 해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었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술, 여자, 노름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가 되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버려진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다갔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

다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

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냥 교회 뜰만 밟고 다닐 뿐, 진정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마7:21).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남색한다면, 또한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남의 것을 빼앗는다면 당신에게 예수와의 만남은 없었던 것입니다(고전6:9~10). 여전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리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있습니까(잠6:17~19)?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승천 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분도 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대단

하다’고 입으로만 칭송하던 자들이었고, 더는 무리에 휩싸여 따라만 다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만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을

인맥은 금맥이요 성공의 인프라다

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벧후1:4~7).

여러분,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니다. 그러나 관계는 우리가 형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 주셨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눅23:42)라는 말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타가 공인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실의에 빠져있었지만, 부활 후 찾아오신 예수님께 세 번의 진정어린 사랑 고백을 통해 다시 사도로서 거듭납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진정어린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러입니다. 그녀가 스승인 설리반을 만나 사람 구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가로, 문필가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윈스턴 처칠과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의 만남 역시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초기에 꿈입니다. 제가 당시 교계의 거목이신 어느 목사님과 함께 잠을 자는데 북풍한설이 몰려와 너무 추운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어 꿈에서는 다른 어느 목사님과 함께 제가 잠을 자는데,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지 단잠을 잤습니다. 잠을 깬 저는 전자(前者)의 목사님을 따라가면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것이지만, 후자(後者)의 목사님을 따라가면 목회가 편안하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노선을 좇았습니다. 그 분처럼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 길은 꿈처럼 편안한 길은 아니었지만, 그 분과의 만남을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Messages for today::

바로바로 하세요!

필자가 서울에서 교육목사로 사역하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너무도 값진 선물을 받았다. 학생들과 청년, 그리고 교육부서를 거쳐 간 제자들이 한 푼 두 푼, 뜻을 한데 모아 승용차를 선물한 것이었다. 공장에서 막 출고되어 탁송된 차량을 전달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던 제자들의 별장게 상기된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동안 필자의 발이 되어 다섯 명도 너끈히 태우고 다녔던 티무진(티코)이 이에 비할 바겠는가! 어찌나 감사하던지... 필이 들어가 은은히 반짝거리는 검은색 준중형 승용차는 필자에겐 더 이상 이동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지난날의 소중한 추억이요, 또한 더욱 분발해야 할 사역의 이유였다.

사역지가 바뀌어 지교회로 옮긴 이듬해, 그 땐 유난히도 봄비가 자주 내렸다. 사정상 노상주차장에 주차했더니 온통 흙투성이다. 한반도를 휩쓴 황사와 산성비 때문이었다. 비가 좀 그쳐야 세차를 할 터인데 몇 주 동안 하늘은 그야말로 우중충, 우거지상이었다. 해가 나길 기다렸지만 상황은 요지부동. 미루고 미루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한참만에야 세차를 했다. 구석구석 찌든 때를 제거하니 비로소 마음 또한 개운해진다.

다음 날, 황사가 가시고 정말 오랜만에 하늘이 맑았다. 그런데 이게 웬걸? 주차된 차량을 보니 여기저기 얼룩이 젖어 있는 것이었다. 가만 보니 황사와 산성비가 그새 차량을 부식시켜 자국을 남겨버린 것이다. ‘귀찮기도 하고, 해가 나면 해야지’

하고 미뤄둔 것이 결국은 화를 자초하고야 말았다.

그렇다. 해야 할 일 미뤄 뒤보야 결국엔 나만 손해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해야 한다. 설거지 감 쌓아 뒤보야 바퀴벌레나 들끓고, 빨래 감 쌓아 뒤보야 얼룩만 심해진다. 어디 이뿐이라!

영적인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기도를 쉬지 말고 묵상을 생활화해야 한다. ‘뉘고, 기름 치고, 조이자!’는 비단 자동차 정비업체에만 해당되는 구호가 아니다. 유혹 앞에 장사 없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한 먼지도 쌓이고 쌓이니까 이렇게 자국을 남기는데 하물며 죄악은 어떠하랴! 수시로 우리 영혼을 돌아보아야 한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 하나 있다.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든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술술 잘 풀릴 때 찾아온다. ‘힘들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넘기고 내일부터 하지’, ‘뭐 하루 이를 건너뛰다고 된 일이야 생기겠어?’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우는 사자 같이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말 것이다. 당신도 예외일 순 없다.

‘Do it Now!’

미루지 말자. 바로바로 하자. 소 잃고 나서야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뭐든 예방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4:2)!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범사에 감사하라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무를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예수중심편집실



::To be Succeed::

묵은 생각을 기경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 간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한명 한명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복이 많다. 해보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는 것만 봐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업무 성과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개혁정신, 도전정신의 대명사, 고 정주영 회장은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정주영, 청춘에게 답하다>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법이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밖에 못하게 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일제 치하 시절 홀로 상경하여 남의 쌀가게 하나를 물려받아 현대라는 대기업을 일구어 내기까지 수없는 실패와 도전의 파도를 넘나든 그가 삶으로 터득한 산지식이기에 가슴 깊이 새겨들을 만하다.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에,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그리고 안 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단 1%도 끼워 넣지 않는다던 그는 남다른 생각으로 성공을 일구었다. 너무 더워서 누구도 일할 수

없다는 중동에서 낮에는 근로자들을 재우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일하게 하여 달리를 특별기로 가득 싣고 들어오는가 하면, 60년대 그 어려운 시절, 영국 은행의 대출과 선박왕 오나시스의 차남의 선박 주문을 받아내 대한민국에 조선소를 만들어냈다.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 무슨 조선소냐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세계에 내로라하는 지금의 현대중공업이 정 전회장의 ‘미친 생각’을 말없이 대변하고 있다.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며 안 된다고 손사래 치는 이들에게 “이봐, 해봤어?”라고 일침을 가한 그의 말은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열정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전 세계 25개국 이상 개도국의 지역개발을 위한 단체의 부총재직을 담당하는 대로우 L. 밀러는 그의 저서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를 통해 가난과 굶주림, 질병에 고통 받는 국가들에 필요한 것은 단지 물리적인 도움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머릿속에 뿌리깊이 박힌 부정적인 사고방식, 잠재력과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소극적인 생각을 개혁하는 작업이야말로 그들의 삶과 운명을 바꿔줄 중대 사안이라는 것이다. 말인즉슨

‘생각’이 부(富)도, 가난도 창출해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는 뜻이다.

그렇다. 생각이라는 것은 입술의 언어와 더불어 행동으로 표출되어 마침내는 그에 걸맞은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부정의 생각, 고통의 생각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분의 생각은 분명 생명과 소망과 평안이다(렘29:11). 그릇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여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려는 것은 악한 영적 존재의 교묘한 전략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뱀이 하와를 꾀어 선악과를 먹게 했음을, 사단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음을 보라. 그러므로 내 생각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듯 나의 썩은 생각, 고착된 사고, 부정적인 사고를 과감히 갈아엎을 때에 비로소 내 영·혼·육에 혁신이 이루어져 일상이, 일생이, 더 나아가 영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미국에서는 매년 1월의 세 번째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날은 한 목사님을 추모하는 날이다. 그분은 바로 ‘난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나의 네 자녀가 그들의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시다.

2015년 2월에 시행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일대기 중 한 부분을 다룬 ‘셀마’라는 영화의 ‘글로리(Glory)’라는 곡이 주제가상을 받았다.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흑인들의 염원이 담긴 ‘글로리’라는 노래가 시상식장을 덮치며 모든 사람들은 공연을 펼친 이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 영화는 1965년 남과 북이 전쟁을 끝낸 직후 노예 차별이 심했던 남부의 한 도시 ‘셀마’를 배경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그 일행들이 흑인 투표권 보장을 위해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54km의 대규모 평화 행진을 통해 역사를 바꾼 사건을 다루고 있다. 평화 행진 속에 참석한 몇몇이 권력과 폭력 속에 죽거나 다치면서 목사님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만 그 행진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존슨 대통령에 의해 흑인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된다. 또 2008년 11월 5일 ‘버락 오바마’라는 미국 역사상 첫 흑인대통령이 탄생하였다. 한 사람 킹 목사님의 꿈이 만인의 꿈이 되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누군가의 꿈이 될 수도 있다. 철저히 준비해서 계획된 알찬 삶을 살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더럼(Durham)의 라이프 인터내셔널 교회 담임이며 가나 아크로 국립대학 총장, 가나 경제인협회장, 세계적인 저술가인 킹슬리 플레처(Dr. Kingsley Fletcher) 목사가 지난 3일 방한했다.

다음은 플레처 목사가 예수중심기도원에서 설교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나는 올해로 49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출생했고, 현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나는 캐나다에 있는 친구에게 하나님이 현재 가장 크게 쓰고 있는 종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한국의 이초석 목사를 소개했습니다. 친구이며 동역자인 그는 나에게 이초석 목사님의 집회영상을 몇 개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이초석 목사님의 집회영상을 보자마자 “아~ 나는 저분을 만나려고 태어났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나는 4개월 동안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이렇게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는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초석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이초석 목사님은 완벽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지도자가 바로 여러분의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사님을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크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초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평생 찾던 분을 찾았습니다

합니다. 앞으로 30년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59년 전 가나에서 10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2001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금 99세

입니다. 우리 가정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졌고 늘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6살이 되었을 때, 누군가 화살을 내 눈에 쏘아 나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은 밤낮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이 살린다고 믿었고 의사와 주위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물론 주위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의식불명이 된 지 3개월 만에 나는 부모님의 믿음대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식이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로 치료를 받는 9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당시 나는 6살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예수님이 매일 찾아와 말씀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한 준비임을 몰랐습니다.

나는 거의 1년 만에 퇴원했고, 그 때 7살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부름을 받고 설교를 했고, 10살부터는 전도자로 일하게 되었으며, 정식으로 목사가 된 것은 15살 때였습니다. 그러니 10살부터 지금까지 49년째 목회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서나 집회를 하게 했습니다. 내가 17살 되던 해의 일입니다. 한 장소에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장소는 많은 목회자들이 가기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과 주술을 하는 무당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

다. 이미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말은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에도 나는 아버지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항상 내 머리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에게 주신 능력을 내게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당이 날뛰는 그곳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며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를 죽여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어떤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여자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3일 전에 죽었습니다. 그 여자는 주위 사람들이 아이를 물어주라고 했지만, 천에 싸서 안고는 실성한 듯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집회에 와서 맨 뒤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설교를 하자 여자는 군중 속을 뚫고 단 위로 올라와 아이를 내게 주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내게 주고는 다시 단을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죽은 지 세 시간도 아니고 삼일 된 아이를 안고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때 나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나를 하늘을 쳐다보며, “엘리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 죽은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군중들에게 방금 당신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시간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기도한 후에 그 어미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기도 후에 아이를 그 여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받자마자 그 여자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갑자기 아이를 묶었던 천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아이가 천을 벗기는 순간 움직였습니다. 죽은 지 삼일 된 아이가 예

수 이름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로 나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앓은뱅이, 소경 할 것 없이 많은 병자들이 기도도 안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나의 목회에 홍보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서 방방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집회에 몰려들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죽은 자를 7명 살렸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하셔서 선교사 자격으로 독일, 캐나다, 일본… 등으로 나가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안 가본 데 없이 다녔고, 마침내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를 붙여 달라. 주님에게 쓰임 받고, 기적을 행하는 목사를 붙여달라고 기도했고 찾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고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해보십시오. 저도 이초석 목사님처럼 앞으로 30년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초석 목사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저 예수중심교단의 총회장이며, 하나님의 종인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이초석 목사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세계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쓰고 있는 종이십니다. 그 분이 성령님과 함께 일한 30년의 세월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쓰임 받게 될 3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 일어날 일들은 가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이초석 목사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초석 목사님과 함께 죽기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평생에 찾던 스승이며 동역자를 이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초석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참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행복을 안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건강할 수 있다::

파킨슨 병(Parkinson disease)

파킨슨(Parkinson disease)병은 뇌의 흑질에 분포하는 도파민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하여 안정시 떨림, 경직, 운동완만 및 자세 불안정성을 특징적으로 하는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현재까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인자와 환경인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가설이 보편적이며, 10%정도는 가족력이 있다고 한다. 복성계의 전설인 무하마드 알리나 작고한 교황 바오로 2세도 파킨슨병 증세로 심각한 언어 장애의 문제를 나타내기도 했다.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60대에 이르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

는데, 50세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를 조기 발현 파킨슨병이라 정의한다. 초기 증상이 통증이나 우울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손이나 팔에서 떨림이 일어나고 관절의 움직임이 어색하며 불편하다는 호소를 많이 한다. 파킨슨병을 의미하는 4대 주요 증상 및 징후들로는 안정떨림, 경직, 느린 운동 및 자세 불안정성 등이 있다.

치료방법으로는 레보도파 요법, 약물치료, 수술치료, 재활치료 등이 있다. 도파민 전구물질인 레보도파를 기본으로 하는 레보도파 요법과 파킨슨의 가장 흔한

증상인 우울증 치료에 항우울제를 투여한다. 약물치료는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재활치료는 고령이 노인들에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언어능력 저하로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몸이 굳어가는 환자들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파킨슨병의 한방치료로는 침구, 봉독, 한약치료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레보도파와 한약제를 이용하여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파킨슨병의 떨림증상에 억간산 처방을 활용하거나, 환각에 천궁다조산, 식욕부진 및 소화장애에 육군자탕, 우울증

에 귀비탕, 근긴장이나 통증에 작약감초탕과 같은 생약제제를 병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며, 실제로 개개인에 따라 레보도파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들을 양한방의 장점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다루는 노력을 하고 있다.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면 규칙적인 운동 및 식사습관과 같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족 역시 환자의 신체기능 저하와 심리적 변화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